

# '2022 민주야! 여행가자'탐방 보고서

## 1

### 팀 정보

1) 팀명 techtory

2) 구성원 이름/소속

이름	소속	생년월일	역할
김서윤	이화여자대학교	2003.06.09.	팀장 / 문서 작업 / 영상촬영
김초리	이화여자대학교	1997.07.18	박물관 조사 / 현지 인터뷰 담당
백민서	이화여자대학교	2003.08.19	주제 기획 / 문서 작업
윤은지	이화여자대학교	1992.06.15	현지 자료 조사 / 전문자료 조사

3) 팀 소개 및 지원 계기

저희는 모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어떠한 기술을 결합해 시도해 보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AI 기반의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된 민주화 운동 정신을 학생들에게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에 옮기고자 교육공학과와 사회과교육과 두 개의 전공을 가진 네 명의 학생이 모여 한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 정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역사 교육의 가장 큰 단점은 역사를 단순한 암기에 초점을 두고, 현장에서 교과서 외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찌하면 아이들이 가장 지루해하고 어려워하는 민주주의 발전 정신을 더 흥미롭게 가르칠 수 있는지 고민해왔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민주주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 유적지에 관한 최신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탐방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습자에게 중요하게 전달해야 하는 학습 포인트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원하였습니다.

## 2

## 탐방 계획

## 1) 탐방 주제

민주주의 역사 탐방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 학습 지도안 개발

## 2) 탐방 기간

날짜	지역	장소
8/5	서울	명동성당-서울역광장-서울시청-이한열기념관
8/16	마산	창동 상상길-창동 예술촌-오동동 문화광장-3.15 의거발원지 기념관-경남대-김주열 시신 안양지
8/17	부산	부산대학교-민주항쟁기념관-4.19희생위령탑
9/17	서울	근현대사기념관-국립 4.19 민주묘지
9/22	서울	국회박물관-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 기타 탐방(AI교육 관련)

날짜	지역	장소	활동내용
8/12	서울	코엑스	2022 에듀플러스워크에서 구글 활용 인공지능교육 세미나를 듣고 박람회장을 구경함.
8/19	부산	LG디스커버리랩	SLAM 기술에 대해 배우고 로봇청소기를 코딩을 통해 작동시켜보는 프로그램을 수강함. 그 외에도 제스처 인식 연구소, 챗봇 연구소 등 LG디스커버리랩에서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들음.

## 3) 탐방 전 사전 준비

- 부마 민주 항쟁 기념재단 도슨트 예약
- 민주화 운동 강북구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예약
- AI&에듀테크 스터디 모임

※ 신문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청년 민주주의 신문

발행·편집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청년 기자단 techtory

2022년 [제1호]

### 민주항쟁의 중심 속으로!

명동성당-서울역광장-서울시청-이한열기념관



6월 민주항쟁의 중심이었던 명동성당에 방문했습니다. 항쟁 당시 사진을 통해 현재 모습과 비교하며 그 시절 격렬했던 상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서울역 광장과 서울시청을 걸으며 당시 정부에 부당함을 느끼고 민주주의를 원했던 학생들의 간절했던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한열 기념관에서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신문과 영상 그리고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6월 민주항쟁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료들을 접하면서 역사를 단순히 글로 정리해 공부하기보단 증언과 사료 같이 실제 존재했던 증거들을 활용해 각 사건을 바라보면 학생들이 역사를 지루해하지 않고 더욱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22.08.05. 윤은지 기자-

### 마산 민주화의 길을 걷다!

설레는 기차를 타고 마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저희의 탐방 목표를 들으시고 신등초등학교 차형률 교사님의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사무실에서 선생님의 역사 강의를 간단히 듣고 역사 및 미래 교육과 아이들에게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르쳐야 할 정신은 무엇인지,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선생님과 함께 창동 상상길-창동 예술촌-3.15의거 발원지-3.15의거 기념탑-경남대 부마민주항쟁시원석-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를 다녀왔습니다. 교사분과 함께 해 역사 교육과 탐방 장소를 연결지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교육현장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022.08.16 김초리 기자-

## ‘유신철폐 독재타도’ 구호를 찾아서!



부마민주항쟁재단의 도움으로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부산대 코스를 탐방했습니다. 상학관(현 자연과학관)-인문 사회관(현 제1 사범관)-도서관(현 건설관)-정문-사대부고(현 제8공학관)-운동장(현 넉넉한 터)-구정문 순으로 이동하며 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경로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행진했던 길을 따라 걸으니 시위 현장의 모습이 저절로 그려지고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일 오후 노을 지는 풍경이 비치는 버스를 타고 민주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주항쟁기념관을 관람하고 4.19 희생 위령탑 앞에서 묵념을 드렸습니다.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저항의 도시, 부산에서 헌신한 열사들의 바른 뜻을 전승받았습니다.

-2022.08.17. 백민서 기자-

## 4.19혁명의 의미를 새기며!

근현대사기념관-국립 4.19 민주묘지

우이동에 있는 근현대사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14시에 도슨트를 예약하여 해설사분과 함께 걸었습니다. 본격적인 관람 전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단순한 사건 전달보다 전체적인 사건의 원인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져보며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그 후 근현대사기념관을 관람했습니다. 2.28 대구학생의거부터 4.19 시민혁명의 현장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볼 수 있었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위 장면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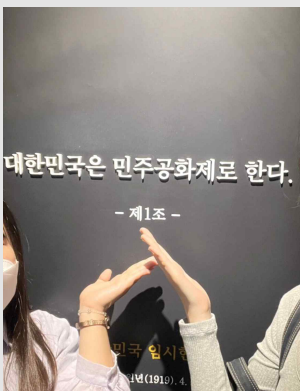


특히 4.19혁명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를 입증하였고, 어린 학생들이 '스튜던트 파워'를 통해 애국심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국립 4.19 민주 묘지에서 열사들을 위한 묵념을 했습니다. 중학생의 묘를 보며 해설사님과 대학생이 아닌 중·고등학생이 시위를 이끌었던 이유를 논의해보았습니다. 학생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2022.09.17. 김서윤 기자-

## 현대 민주주의의 현장에 가다!

국회박물관-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공부하고자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의미와 헌법 정신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서대문에 위치한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도착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김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시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념관 방문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중요시하는 현재 교육관과 체험형 학습을 위한 교수방법으로서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민주정신과 헌법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에 좋은 학습 자료를 만들기 위해 고안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2022.09.22. 김초리 백민서 기자-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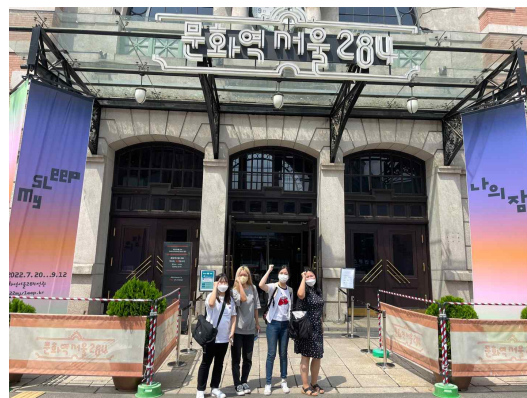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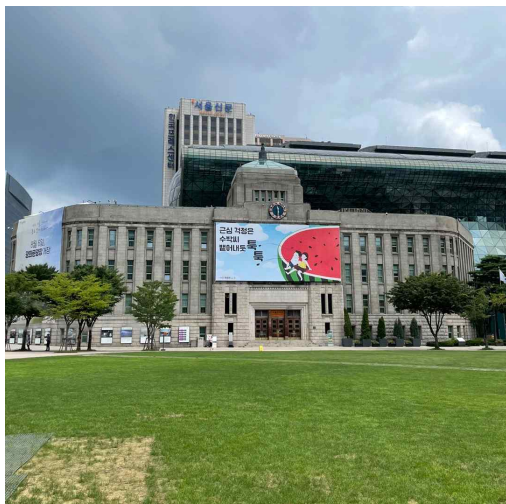
## 세부 탐방 일정

## 1. 서울, 명동성당 (2022.08.05)



명동성당은 1970년~1980년 당대 유신체제 민주화 운동과 신군부세력에 대항하는 시위를 하던 시민군들의 집결지였으며 공권력으로부터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였다. 천주교는 민주화 운동의 든든한 지원 세력이 되어주었다. 미사복을 입고 함께 시위를 벌인 천주교 사제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을 따라 걸었다.

## 2. 서울역 광장 일대, 문화역 서울 284 (2022.08.05.)



현재 다양한 전시와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화역 서울 284는 과거 서울역이었다. 당시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 통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공권력이 의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고,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서울역 광장에 모여 국민 평화 대행진을 하였다. 독재 정권에 의해 사망한 박종철 군과 이한열 군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그들은 민주주의를 이뤄내기 위해 총과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했다. 따라서 그들의 열기를 조금이라도 느껴보고자 시위를 하듯 광장을 달려보기도 하였다.

### 3. 이한열 열사 기념관 (2022.08.05.)



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정부의 고문에 의해 박종철 군이 사망하게 되고, 시위의 확산세는 더욱 커졌다. 박종철 군 사망 은폐와 독재 타도에 대한 6월 시민 항쟁 도중 시위대 앞에 있던 이한열 군이 후두부에 최루탄을 맞아 사망하게 되었다. 그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인 이한열 열사 기념관에서 이한열 군의 생애와 시위 당시 입고 있던 옷 그리고 그의 필체와 일기, 편지 등을 볼 수 있었고, 1987년 유월 항쟁의 현장과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 4. 경남 창원, 경남대학교 (2022.08.16.)



경남대는 유신에 대해 중립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다. 하지만 그들 역시 정부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변화를 바라는 열망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열망을 실현하고자 그들은 노인정이라고 불리는 바위와 도서관 앞에서 유신 독재 비판 연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학생들의 호응 속에 시위를 이어나갔다. 지금 현재 대학 내에 시위를 기념하는 기념물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존재하는 기념물에 대한 안내와 설명도 존재하지 않은 채 관리가 소홀한 점이 다수 발견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럼에도 그들의 뜨거운 정신을 기릴 수 있어서 뜻깊었다.

### 5.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 (2022.08.16.)



3.15 발원지 기념관에서 부마 민중항쟁의 이야기를 찬찬히 볼 수 있었다. 그날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시청을 통해 뜨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잔인했던 당시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3.15 의거탑과 발원지 기념관은 창원시의 주도로 설립된 것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기리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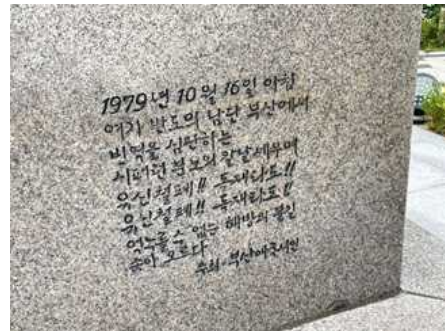
현재 기념관 주변을 걸으면 곳곳에 숨겨있는 많은 기념물을 볼 수 있다. 얼핏 보면 잘 모를 수 있지만 맨홀 뚜껑, 표지판 등 다양한 곳에서 그 당시를 기념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 수저로 만든 새싹 기념비가 아직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민중의 삶과 가장 직결된 식기도구 중 수저를 통해 새싹 형상을 만들며 강인하고 적극적인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되어 무척 새롭고 놀랐기 때문이다.

## 6. 경남 창원, 김주열 시신 인양지, 창동거리



3.15 독재 정권과 부정 선거에 대해 저항하던 시위 후 실종되었던 김주열 군은 시신으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 오른쪽 눈에 미국제 최루탄이 박힌 그의 모습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으며 전국적인 시위가 재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경남 창원에 방문했던 날에는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내렸는데, 우중충한 날씨는 이곳의 분위기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 7. 부산. 부산대학교 구 정문 발원지 표석, 부마민주항쟁탑 (2022.08.17.)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담당자분의 도움을 받아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반정부시위를 보다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다. 당시 유신 독재에 반대하던 부산대 학생들은 수업을 듣던 중 뛰쳐나와 시위에 참여했다. 그들은 학교 곳곳마다 선언문을 배포하면서 학교 밖까지 진출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계획은 정문 앞에 주둔해있는 경찰들로 인해 무산되었다. 현재 부산대에는 햇불을 형상화한 부마민주항쟁탑 뿐만 아니라, 시위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념물들이 많이 남아있어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서 설명을 듣는 재미가 있었다.

## 8. 부산, 부산 민주공원, 희생 위령탑과 영령 봉안소 (2022.0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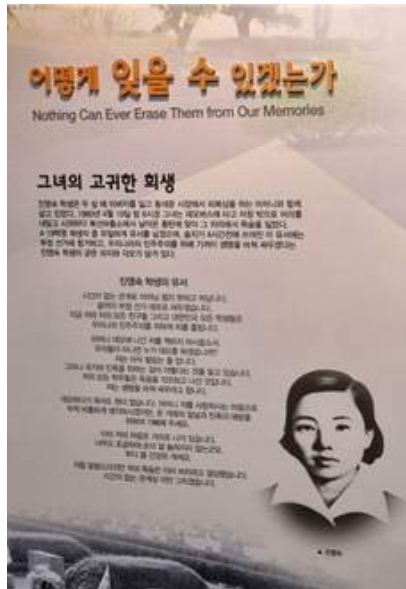
부산 민주공원에는 4.19 혁명 희생자 위령탑과 영령 봉안소가 있다. 이 곳은 정권의 부당한 권력에 맞섰던 4.19혁명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부산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넓고 긴 도로 끝에 위치한 위령탑은 웅장하고 존재감이 커 아주 먼 곳에서부터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또한, 흰색의 탑이 주변의 자연과 어울려 더욱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던 것 같다.

## 9. 근현대사기념관 (2022.09.17.)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성지인 강북구에 위치한 근현대사기념관은 우리의 근현대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곳에서 조선 후기 핍박 받던 백성들이 일으킨 동학농민운동부터 일제의 탄압에 항거한 독립운동, 독재로부터 해방을 꿈꾼 민주항쟁까지의 흐름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다.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의에 저항했던 선조들의 투쟁을 기억하며 그들이 열망했던 나라를 이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10. 국립 4.19 민주묘지 (2022.09.17.)



국립 4.19 민주묘지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불의의 독재 권력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난 4.19혁명 유공자들이 안장된 곳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갔던 평범했던 학생들, 시민들 그리고 지식인들까지.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했던 부당한 정권을 심판했다. 불완전했던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그들의 염원을 엿보고 4.19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 11. 국회박물관 (2022.09.22.)



국회박물관에서는 임시 의정원에서 시작된 민주주의가 현대에 안착하기까지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걸어온 의정활동을 알 수 있었고,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냈던 역대 국회의장들의 발언과 활동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각 전시실을 통해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차례로 관람하면서 민주주의의 길을 알아볼 수 있었다.

## 12.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2022.09.22.)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대한제국이 무너진 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의 가치를 계승함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정부이다.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탐방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시작이었던 임시정부의 의미가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

## 1) 소감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쉽게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불씨가 헛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다 짓밟혀도 끝까지 꺼지지 않았기에 쟁취한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던 이들이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더 나은 세상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투쟁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했기에 얻은 평화입니다. 그렇기에 교과과정 속 한 줄로 서술된 것이 전부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심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항상 '독재'와 싸워왔습니다. 민주주의란 추상적인 관념을 얻기 위해 눈에 보이는 폭력을 보면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들의 이상이 실현된 것이냐 묻는다면 선뜻 긍정의 답을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답사를 통해 한 줄의 역사로 남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들만큼 용감하진 못하더라도 나 역시 우리 세대가 가져야 할 시대의 소명을 고민하고 지금 이 사회가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탐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역사가 기록하는 한 줄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 2) 향후 활동 및 계획

저희는 탐방 경험을 발판 삼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지도안을 제작할 것입니다. 저희가 민주주의 여행을 통해 겪은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학생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 남은 3개월 간 에듀테크 기술을 통해 민주주의 운동과 그 정신을 학생들이 보다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예정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과거의 민주화 운동, 현재의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의 기술이 공존하는 융·복합적인 학습 지도안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

## 답사기

<https://www.facebook.com/groups/3212502429008921/permalink/3234317710160726/>